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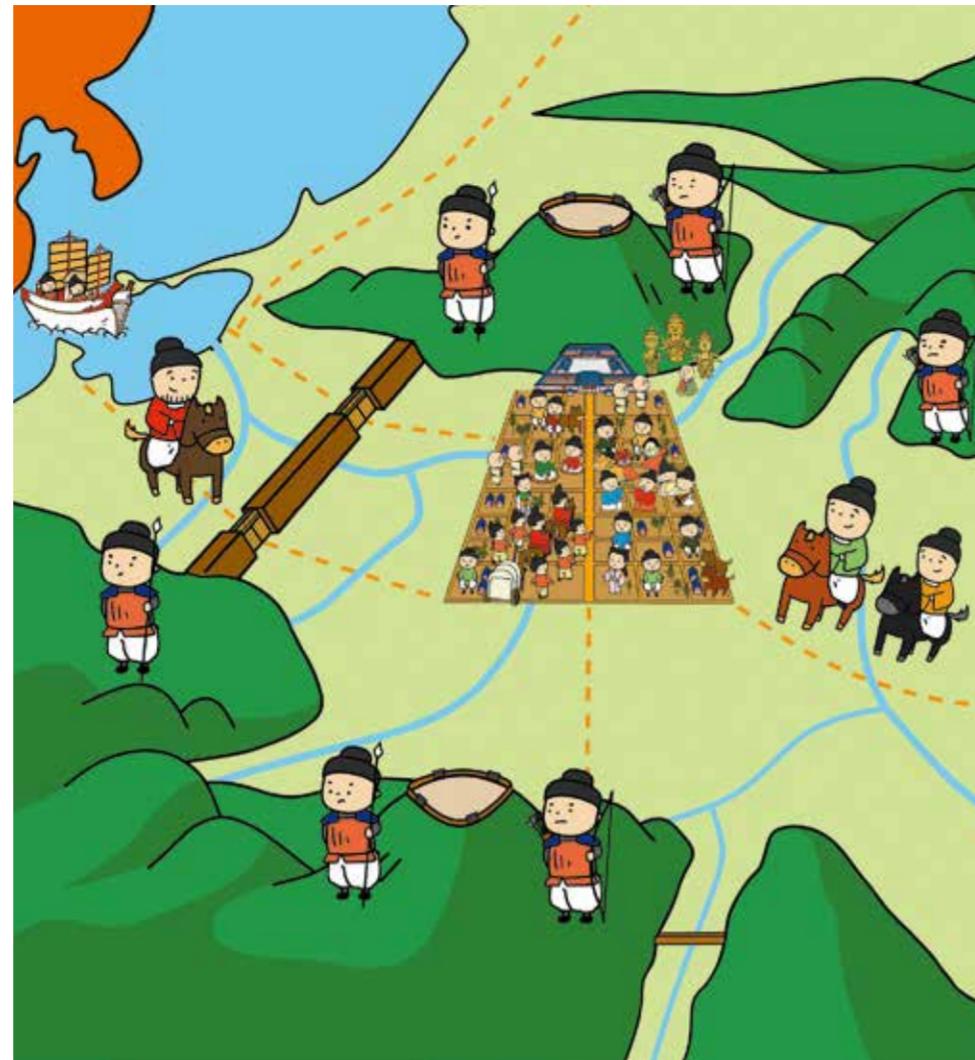
The Western Capital of Ancient Japan

고대 일본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
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

日本遺産
JAPAN HERITAGE



01 프롤로그



일본의 서쪽, 규슈의 츠쿠시 지역에는 일찍이 도읍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자이후입니다. 약 1,300년 전에 탄생한 다자이후는 「천하지일도회(天下之一都會)」라고 불릴 정도로 번창하고, 고대·중세를 통해 일본 국내나 해외로부터 들어온 선진 문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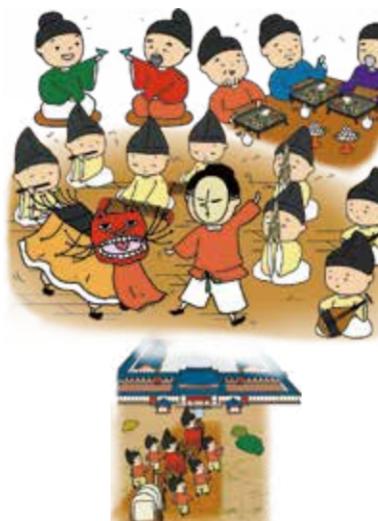
02 격동의 시대에서 교류의 시대로



이 지역은 대륙이나 한반도와도 가깝고 일찍부터 동아시아와 교류하면서 우수한 문화와 기술이 계승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평화로운 교류뿐만 아니라, 663년 우호관계에 있던 백제(百濟)의 부흥을 목표로 한 당시의 일본은 백성 강 전투에서 지고, 당나라(唐)과 신라(新羅)의 위협에 대비해 방위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의 창구였던 츠쿠시 지역에는 많은 성채가 쌓여 방비가 튼튼해졌습니다.



마침내, 긴장의 시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교류의 무대로 나아갑니다. 당나라의 수도를 방문한 견당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바둑판처럼 구획된 거리를 조성하고, 여러 관공서나 외국사절단을 위한 영빈관, 기와지붕의 웅장한 사찰 등이 늘어선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다자이후가 탄생했습니다. 하카타만에 도착한 외국사절들은 직선적으로 뻗은 관도를 따라 다자이후로 들어가 악연주와 화려한 음식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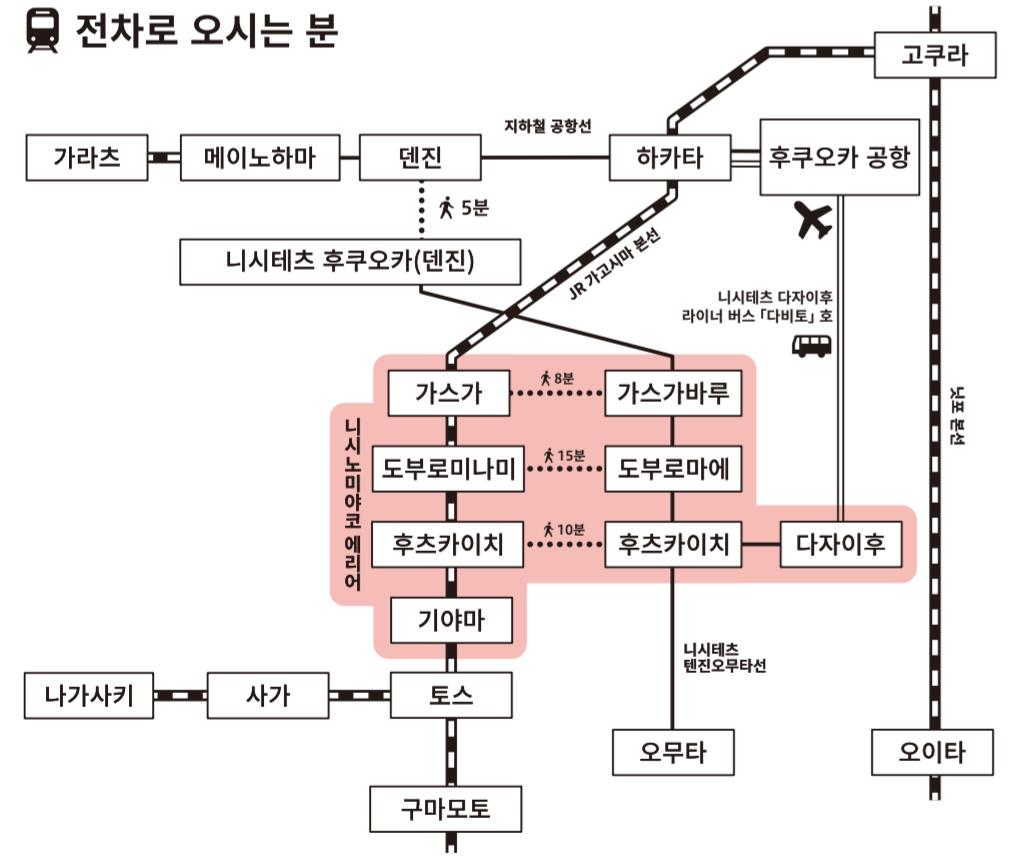
03 꽃 피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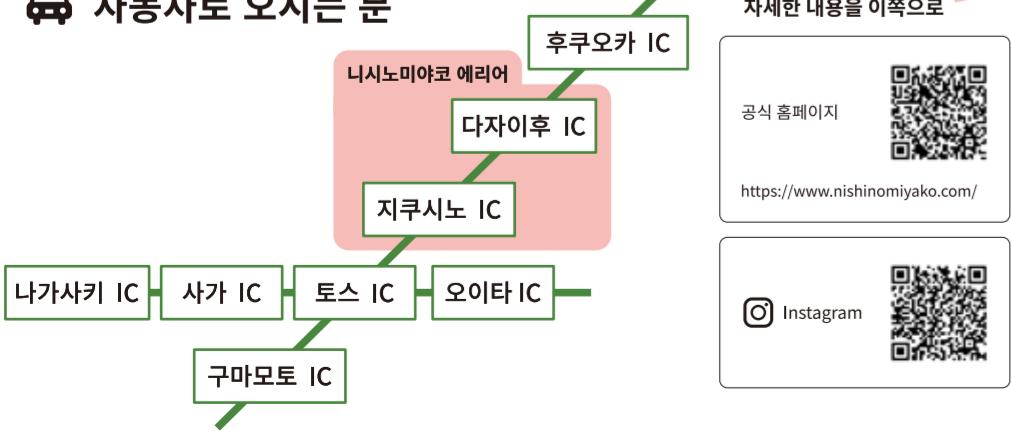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다자이후에는 수많은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 접적되어 갔습니다. 다자이후를 상징하는 「매화」도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외래 문물의 하나로, 다자이후의 장관인 오토모노 다비토(大伴旅人)의 저택에서 열린 「매화연」에서는 매화를 사랑에 비유한 시를 읊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시기로, 츠쿠시 지역에도 불교문화가 꽃 피었습니다.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다자이후와 그 주변에는 지금도 국내외와의 다양한 교류를 전하는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 전차로 오시는 분



■ 자동차로 오시는 분



보기·배우기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의 역사를 배우는 거점



A-O

국제 도시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국제 교류 도시



1·6·14·15·16

국방 유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 시설



2·3·20·21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 텐만구

합격 기원으로 활기찬 문예 성지



10·12·18·19

추천!!

서쪽의 도읍「니시노미야코」 볼거리

일본 유산「고대 일본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의 안내를 맡은 「니시노 미야코」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구성 문화재가 있어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거리를 정리해 봤으니 여러분께서도 둘러봐 주세요



신사·사찰

다자이후와 연고가 깊은 신사와 사찰



4·5·8·9·17·23·25

혼자서 만끽

조용히 즐기는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의 문화



11·13·19·28

편안함

아득한 전망과 편해지는 온천



1·6·14·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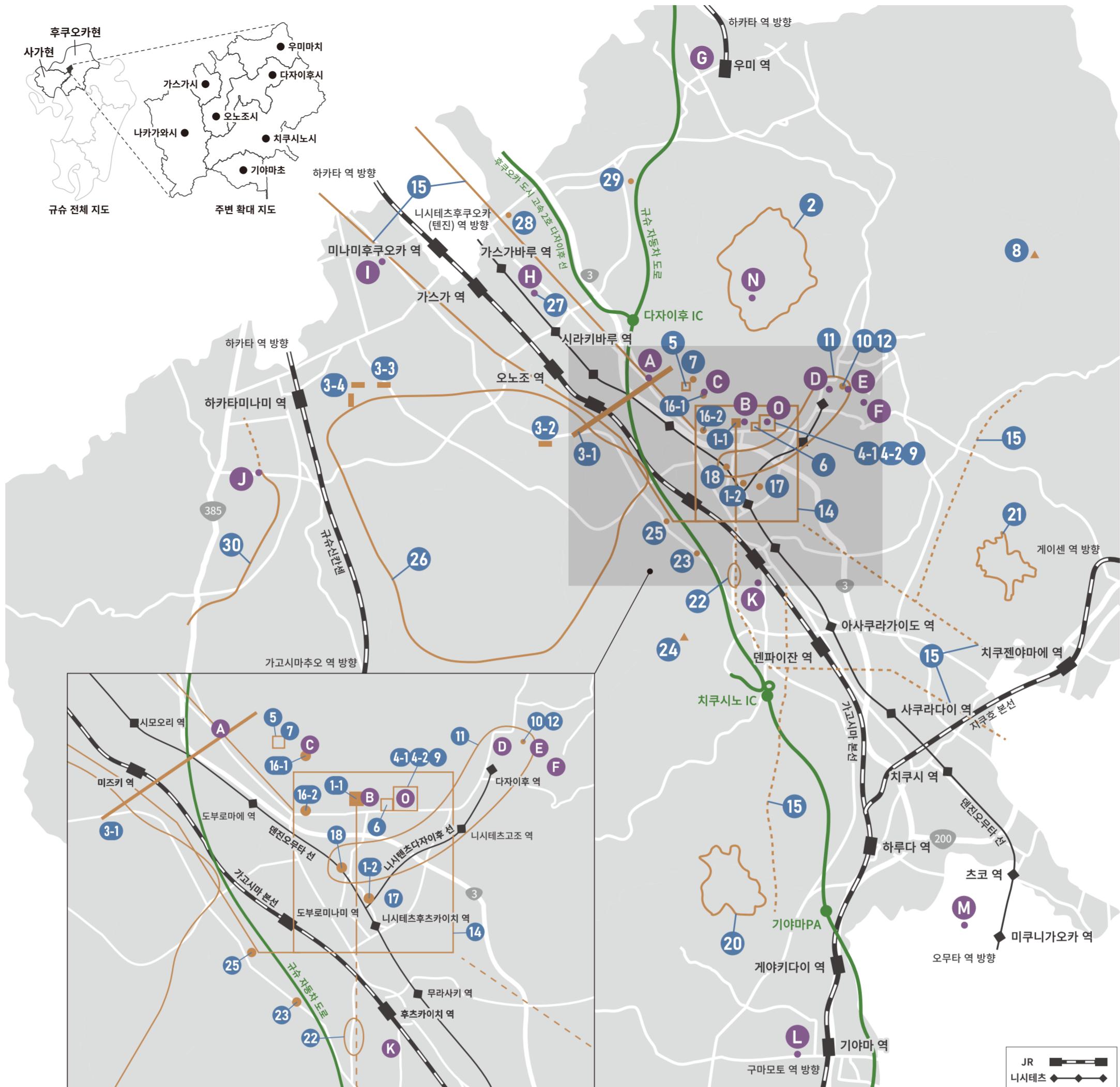
유적으로 만족

새로운 매력을 느끼는 유적



7·26·27·29·30

**동아시아 교류 거점으로 활기찬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다자이후.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다양한 구성 문화재가 그 매력을 말해줍니다.**



배우는 시설

